

익산시립 · 시민 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

익산시립합창단, 제86회 정기연주회 시민합창단과 '함께!!' 공연 무대 올라 호평

익산시립합창단과 익산에서 활동하는 시민합창단이 함께하는 공연에 나선 '화합과 동반'의 감동 무대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이날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86회 정기연주회를 무대에 올리고 시민합창단과 '함께!!'라는 공연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익산시립합창단과 익산에서 활동하는 시민합창단이 함께하는 공연에 나선 '화합과 동반'의 감동 무대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지역 내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익산시립합창단과 순수하게 합창 활동이 좋아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무대 위에서 서로 호흡을 맞춘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객들도 감동이 두 배였다는 호평이다. 관객들은 특히 '시립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합창단이 진정한 문화적 동행 차원에서 무대에 함께 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익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냈다.

노기환 익산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두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번 무대에서는 청산별곡, 달아달아 밝은 달아, 서툰고백, 마중, 연 등 주옥같은 곡들로 박수를 받았으며, 마지막 무대는 오케스트라 무대로 전환해 시립합창단과 함께 가을 가곡 모음곡을 들려주는 등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다.

앞서 익산시립합창단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가량 시민합창단 모집과 개별 연습에 돌입했으며, 지난 9월 18일부터 시민합창단과 합동연습을 거쳐 이번 정기연주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반응과 호응도 더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시민합창단에서는 클로리아선교합창단, 드림합창단, 마이크로합창단, 익산오투합창단, 전북극동방송여성합창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5개의 일반시민 합창단이 공연에 참여해 '화합과 동행'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 관객(부송동)은 "익산시립합창단과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서로 눈길과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며 "문화예술 공연 분야의 화합과 상생 협력이 다른 분야까지 확산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평선과 수평선의 만남' 정기연주회

김제시립합창단, 내달 2일 동해시립합창단과 교류 공연

올해 창단 22주년을 맞이하는 김제시립합창단(단장 이찬준 부시장)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 자매결연도시 동해시와 함께 '지평선과 수평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김제시립합창단(지휘 백동현)과 동해시립합창단(지휘 정은정)의 교류 공연을 통해 시립합창단 개인과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시 이미지 위상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에게 문화 혜택을 위해 준비했다.

아나운서 최지수의 진행으로 김제시립합창단의 '꽃잎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혼성 합창을 시작으로 동해시립합창단의 'Musical Risotto', 'Ritmo'의 합창과 김제시립합창단 '좋아좋아', '리리리'와 동해시립합창단의 '첫사랑', '군가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초대 가수 양수경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을 준비하여 깊어가는 가을 밤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다.

관람권은 2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 영상 콘텐츠 제작 · 마케팅 활용 가능 크리에이터 양성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6~19일까지 4일간 진행, 전북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마케팅 역할까지 가능한 도내 관광 전문인력으로 총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은 미디어 현황 및 트렌드 분석, 인기 콘텐츠 제작 방법, 니만의 채널 만들기(채널 아트, 로고 제작 등) 등 기본적인 이론 교육부터 진행됐다. 또한 교육생이 직접 관광지를 방문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 및 SNS에 업로드 해보는 실습까지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북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마케팅까지 활용 가능한 크리에이터 양성뿐만 아니라, 전북 관광 콘텐츠에 관심이 증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11월 중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인문학 콘서트 성료

부안군문화재단에서 주관한 '부안의 역사가 예술을 만났을 때' 인문학 콘서트가 8월 24일, 9월 14일, 10월 17일 3회에 걸쳐 부안군청 앞 특설무대에서 성료되었다.

'부안의 역사가 예술을 만났을 때'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 문화유산을 문화예술공연과 접목하여 부안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콘서트이다.



인문학 콘서트는 △광복과 백정기 의사 △고려청자 △유형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8월 24일에 진행된 첫 번째 테마 '8.15 광복 & 날과 백정기 의사'에서는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의 강연을 통해 광복 당시의 부안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주고, 백남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백정기 의사 이야기를 들려볼 수 있었다.

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고려 시대 최고의 청자 생산지였던 부안만의 청자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었다.

'평화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파르렛 코야모리스의 공연도 이어졌다.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코야모리스의 음악이 관중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독립운동가들이 가사를 넣어 불렀던 곡인 스코틀랜드 민요 '자별'을 연주하며,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어 '우리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황애리의 우쿨렐레 판소리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인문학 콘서트가 완성되었다. 10월 17일에 진행된 세 번째 테마 '실학, 조선의 임금과 유형원'에서는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형원이 부안에 내려온 이유, 혁신적이었던 '반계수록'과 더불어 매창 시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부안과 유형원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9월 14일에 진행된 두 번째 테마 '생거부안을 담은 부안 고려청자 이야기'는 한정화 학예

또한, '실용과 가치'의 주제로, 세자전거가 공연을 맡았다. 포크와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콘서트가 진행했으며, 삶을 대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군산 방문 간담 갖고 대표 관광지 방문

군산시는 지난 19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일정을 마치고 군산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등록했으며 해외 각국의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동포들의 정

착을 돕고 모국의 소식을 전해 750만의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시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간담을 가지면서 군산의 시정 방침과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근대역사지구 등 군산의 대표 관광지들을 소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군산 방문은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에게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CNN도 반한 아시아에서 저평가된 보물섬 고군산군도에 대해 세계 각국 재외동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30여 명은 1박 2일 동안 고군산군도와 근대역사 박물관, 금강미래체험관 등을 탐방했다. /군산=김광민 기자

축! 전주매일창간

남원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 임실 · 순창 국회의원 이용호	남원시청 시장 최경식	남원시의회 의장 전평기	농협 남원시지부 지부장 오영석	남원축협 조합장 한경식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남원경찰서 서장 김철수	남원 병원 원장 신재훈 박종관 김학경	[주]전북화약 대표 권찬열	

사진: 남원에촌 전통한옥